FX Market Daily

2026-11-12

전일동향

역대급 수출에...1,337.50원에 마감

11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337.50(15:30 기준)에서 6.00원 상승한 1,343.50(07:00 기준)에 개장했다.
환율은 11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소식 발표에 원화 강세 나타내며 하락해 1,337.50원에 종가(07:00 기준)를 기록했다.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2.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36.35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43.50	1343.50	1331.40	1337.50	1336.70
엔화	845.41	846.33	834.73	836.35	-
유로화	1498.35	1500.24	1480.02	1482.24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76	-3.39	-7.45	-16.4
결제환율(수입)	-0.38	-2.07	-5.3	-12.9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기술주 강세에...1,33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33.60, 15:30 기준) 대비 3.80원 상승한 1,336.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강달러에도 위험선호 심리와 수급 요인에 제한적 하락 전망한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AI 투자 우려가 완화되며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등 위험선호 심리가 유입되어, 금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나타날 경우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일 발표된 10월 수출이 1천153억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누적 수출액이 사상 처음 9천억달러를 돌파해 수출 증가세에 따른 달러 공급 기대감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수출업체 매도 물량 유입 가능성에 환율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와 월러 연준 이사의 빅스텝 발언 여파로 연준 긴축 기대가 한층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락 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30.25 ~ 1341.2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729.1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 美 다우지수 : 52486.49, +254.6p(+0.4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54.0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9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